

# 경기중단 노린 도박꾼 유력...제2사건 막아라!

캄보디아서 핫김에 전화했다는 22세 남성 거액 베팅 불리하자 경기무효 의도 전화 단순한 해프닝 아닌 도박꾼 경계령 교훈 KOVO, 관중·선수보호 자구책 마련해야

과연 정말로 핫김에 그랬을까? 9월 16일 제천 KOVO컵 결승전 때 가짜 폭발물설치 신고전화를 했던 22세의 남자가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일 청주지법 제천지청이 이를 공개했다.

그동안 검찰은 신고전화가 걸려온 경로를 추적해 발신지와 발신자를 특정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관련자에게는 귀국을 종용했다. 사건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자의 직접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 조사의 결과가 구속 기소다.

당시 제천시청에 두 차례 걸려온 폭발물설치 전화에 소방당국과 폭발물제거반 등이 긴급 출동했다. 연락을 받은 한국배구연맹(KOVO)도 보안요원을 동원해 제천실내체육관 내부를 살살이 수색했다. 승패가 일찍 기울어지는데 신고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KOVO는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제천소방서 등은 혹여 관중들이 패닉 상태에서 서둘러 대피하다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밖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9월 열렸던 2018 제천·KAL컵 남자프로배구대회는 가짜 폭발물 설치 신고전화로 인해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졌다. 경기 진행을 방해하려던 불법스포츠 도박꾼들의 소행이라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해프닝이 벌어진 16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컵 대회 결승전 장면. 스포츠동아 DB

사상시 등의 행사를 끝내고 모든 관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다음에 수색을 했다.

현재 걸로 드려난 것은 업무집행방해 혐의범으로 구속된 그가 캄보디아에서 핫김에 폭발물 신고를 한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해외에서 추적을 따돌리려고 회사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두 차례나 신고를 한 것도 그렇고 2세트를 마치고 전화를 건 타이밍도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

구단 관계자들은 불법스포츠 도박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결승전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

다는 것이다. 이날 결승전에서 패한 KB손해보험에 많은 돈을 베팅했던 그가 경기상황이 불리해지자 경기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 확인한다. 그가 공식 스포츠도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에 베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누구보다 이쪽 사정에 밝은 그가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생각해진 방법이 폭발물설치 전화였다면 과연 범인은 무엇을 믿고 이 같은 무모한 짓을 할 만큼 많은 돈을 베팅했는지 그 배경이 더 궁금해진다.

검찰의 도박자금 추적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

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제 공은 KOVO에 넘어왔다. 경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누군가의 이런 의도적인 행위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사실이 문제다. 일일이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반응해 선불리 경기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 프로스포츠의 숙성이다.

수많은 관중과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쉽게 경기를 중단하기는 어렵다. 또 안전을 생각해 경기를 중단시킨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보안요원과 소방당국이 체육관을 수색해서 안전이 확인된 경우 다시 경기를 진행하면 되지만 수색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밖으로 내보낸 관중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관중들이 기다리는 도중 환불을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등 생각할 것이 참으로 많다.

일단 경기를 중단시킨 다음에 서스펜디드 경기로 넘겨 다음에 그 상황에서 경기를 재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재경기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이적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KOVO는 미리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이처럼 판단해야 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어서 이번 사건을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고 넘기기 어렵다. 경계하자. 스포츠도박꾼들은 경기와 선수들의 빈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 디샴보, 美 PGA 슈라이너스 오픈 정상

브라이언 디샴보(25·미국)가 5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PC 서머린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총상금 700만달러·약 78억원)에서 정상을 밟았다. 대학 시절 물리학을 전공해 필드 위의 과학자라는 별명을 지닌 디샴보는 이날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기록해 5언더파 66타를 작성하고 최종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상금 14억원을 안았다. 지난 2017~2018시즌 3승에 이어 올 시즌 개막 초반 우승을 달성하면서 다시 한 번 돌풍을 예고했다. 한편 김시우(23)와 임성재(20·이상 CJ대 한통운)는 나란히 13언더파 271타를 기록하고 공동 15위에 올랐다.

## 이용대-김기정조 BWF 월드투어 우승

국가대표 은퇴 후 다시 국제무대 코트로 돌아온 이용대(30·요넥스)-김기정(28·삼성전기) 조가 4일 마카오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시리즈 300서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고성현(31)-신백철(29·이상 김천시청)을 2-1(17-21 21-13 21-19)로 꺾고 금메달을 품었다. 이용대-김기정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이후 태극마크를 반납했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설정했던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연령 제한이 올해 들어 풀리면서 세계무대로 돌아왔다. 둘은 9월 바르셀로나 마스터스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다.

## 토종 살찌우는 'KT 외국인듀오' 랜드리-로건

이타적 플레이로 팀 공동2위 이끌어 적재적소 AS...국내선수 득점 증가

“패스 좀 빼주란 말이야” 국내 프로농구 각 구단 감독들이 외국인선수들에게 매 경기마다 빼뜨리지 않는 말 중 하나다. 외국인선수들은 팀의 주요 득점원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집중 견제를 당한다. 라간어(현대모비스), 제임스 메이슨(LG) 등 존재감 강한 선수들이



랜드리 로건

능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게다가 자신의 득점보다는 동료들의 득점을 돕는 이타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부산 KT의 마커스 랜드리(33)와 데이빗 로건(36)은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좋은 편이지만, 동료들의 공격 찬스도 잘 봐준다. 랜드리-로건은 경기당 23.4점을 기록하면서도 장신 외국인선수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3.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로건 역시 평균 14.8점에 3.9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30대 베테랑인 둘은 운동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타적인 플레이로 국내선수들의 좋은 득점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랜드리-로건의 경우 각 구단 스카우트들로

부터 '어지간한 가드보다 패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인들의 이타적인 플레이로 KT는 양홍석(평균10.4점), 김영환(평균8.4점), 김민욱(평균 6.5점), 김현민(평균6.9점), 박지훈(평균6.3점), 조상열(평균5.2점) 등 국내선수들의 득점이 폭넓게 나오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초 하위권 전력으로 평가 받았던 KT는 시즌 초반 6승 4패로 선전하고 있다.

'용병 몰아주기'가 득세하고 있는 올 시즌, KT는 외국인-국내선수간의 조화가 팀 전력을 기대 이상으로 배가 시킬 수 있는 것을 보란 듯이 입증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STOP & CLEAN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캠페인

## “스포츠베팅 산업화 도래...로드맵 아래 양성화 필요”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본 불법스포츠도박 방지 대책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투표권 발행권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도박을 제외한 모든 수단과 형태의 스포츠베팅은 불법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은 검은 유혹의 손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이는 참여자의 개인적 손실과 도박 중독 위험 등은 물론 지하경제 규모와 확대 등 국가 및 사회적 폐해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추방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이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일반범죄연구실장(행정학 박사)을 만나 그 대안을 모색한다.

#### ● “범죄수익 환수가 필수”

-왜 불법 스포츠도박이 만연할까. “돈이 되니까! 도박 참여자들은 이미 중독이 됐고, 불법행위로 적발되어도 처벌은 미약하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시간과 공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 사법당

국의 수사 단계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쫓지 못한다. 또 자금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도박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그 원천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자칫 돈세탁의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에 폭력조직이 뛰어들어도 오래다. “불법도박은 전형적인 조직범죄이다. 여러 사람이 조직에 참여해 위계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다. 큰 조직이 있고 이들이 소규모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폭력조직은 경기 결과 및 게임 조작은 물론 불법도박의 자금줄이 되기도 한다.”

-많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뤄진다. “외국 당국과 공조수사는 여전히 어렵다. 최근에는 아예 서버를 해외에 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까지 생겨나 심각성을 더한다.”

-청소년의 가담도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새로운 수요자가 청소년이다. 하지만 실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음주나 흡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스마트폰 판매 단계부터 규

제해야 한다는 거다. 이를 공문화할 필요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왜 도박에 빠져드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다. 스포츠도박이 다른 많은 것보다 재미있기 때문일 거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감시와 단속은 필수.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은 쉽지 않다. 박 실장은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과 감시를 위한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검찰과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구들이 있다. 하지만 각기 분산되어 있고 전문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신규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 30명의 전문인력만 있어도 양태는 달라질 거다”고 설명했다.

#### ● “스포츠베팅을 다시 들여다보자”

박준휘 실장은 한편으로 이제는 스포츠베팅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됐다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이를 위해 양성화와 합법화를 연구해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불법시장의 규모와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단속해가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그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베팅의 양성화나 합법화를 논의하기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일반범죄연구실장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중독성과 접근성 때문에 누구나 가담할 수 있다”고 우려형을 경고하며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arineboy@donga.com

는 아직 이르지 않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서 해수욕장을 세 곳만 허가해줬다고 생각해봐. 불법 해수욕장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차라리 허가의 폭을 넓혀서 그 운영자들끼리 시장을 감시하라는 거다. 스포츠베팅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뤄진다. 온라인 공간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스포츠도박 중독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관리와 치료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클 수 있다.

“당연하다. 그러니 로드맵이 필요한 거다. 불법 스포츠도박 폐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한 뒤 단속과 함께 3년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전담기구도 그래서 중요하다. 이와 함께 철저한 도박 중독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박 중독자의 90%가 불법시장에서 나온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 않나. 또 스포츠베팅의 총 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높이고 환급률은 낮출 필요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마냥 도덕률이라는 개념과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자는 거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제로 관리 가능한 시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